20돌 월정사 출가학교, '글로벌 명상 중심지'로 부상

美우든피쉬 7월 1~28일 출가학교 참가
22개국 80명 참여…6, 7일 삭발수계식
정념 스님 "세계인 품는 도량 되겠다"
영어로 프로그램 진행… 'K-불교' 홍포
참가자들 "내면 집중 계기될 것" 기대
미래세대 '국제 명상 교류' 토대 마련돼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 참가한 우든피쉬재단 청년들이 자신들이 받은 수계증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의 외국인 남행자를 삭발해주고 있다.


삭발의식 마친 행자들이 스스로 불자로 거듭날 것을 다짐하고 있다.


월정사 사중스님이 외국인 여행자에게 연비의식을 하고 있다.

평창 월정사=신중일 기자

"Will you take refuge in the Three Jewels?"(그대는 삼보에 귀의하겠습니까?)

"Yes, I will!"(네 그렇습니다!)

7월 6일 월정사 문수선원에 모인 22개국 80여 청년들이 한 목소리로 우렁차게 삼보에 귀의할 것을 외쳤다. 월정사 출가학교 제67기로 입학한 이들은 무명초를 잘라내는 삭발식에 참여했다.

조계종 제4교구본사 오대산 월정사(주지 정념 스님)와 (사)문수청소년회(이사장 해공 스님)가 미국 우든피쉬재단(이사장 이파 스님)과 함께 오는 7월 1~28일까지 4주간 '2024 월정사-우든피쉬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Woodenfish Monastic Life Program with Woljeongsa)'을 진행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으로 이뤄졌다.

월정사 출가학교 20주년을 맞아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우든피쉬재단의 청년 80여 명이 참가했다. 이들은 7월 1일 월정사에 도착해 오리엔테이션과 사찰 탐방 등을 진행했으며, 7월 6~7일 삭발 및 수계식을 갖고 단기출가학교에서 본격적인 출가생활에 들어갔다.

무명초 자르고 계를 받아 지니다

"옴 살바 못자 모지 사다야 사바하." 참회진언이 염송되고,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이 청수를 삭발 참여 행자들의 정수리에 뿌리면서 삭발의식은 시작됐다.

삭발의식 전 주지 정념 스님은 "출가 수행자의 가장 근본이 되는 삭발을 하게 되면 앞으로 25일간 출가 수행자로서 생활을 하게 된다"면서 "그동안 여러분들이 긴 세월을 살아오며 생각으로 입으로 몸으로 지은 번뇌의 업을 오늘 삭발을 통해 잘라내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좋은 세계에 주인공으로 꿈만 꾸더니 무명초 무성한지 몇 해이던가. 오늘 금강보검으로 번쩍 깎아 버리니 끝없는 광명이 온 세계에 밝게 빛나네."

월정사 출가학교 학감 월엄 스님이 게송을 읊자, 삭발을 신청한 행자 30여 명이 일사분란하게 합장하고 고개를 숙여 자신의 머리카락을 주지 정념 스님을 비롯한 사중스님들에게 맡겼다. 스님들의 '금강보도'는 행자들의 오래된 번뇌를 담은 '무명초'들을 싹둑싹둑 잘라냈다.

"삭발해 큰 소원을 내오니 모든 생명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무명의 번뇌를 여의고 적멸에서 자유자재하소서. 부처님 앞에서 무명초를 잘랐으니 이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삭발하며 삼보(三寶)에 귀의한 행자들은 4주라는 짧은 기간이지만 출가사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이들은 이끈 우든피쉬재단 이사장 이파 스님은 참가자들의 삭발에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이파 스님은 "45년 전 나 자신도 대만에서 출가하며 삶의 대전환을 맞았다. 우든피쉬재단의 청년 회원들에게도 이 같은 변화의 순간들을 경험하게 해주고 싶었다"면서 "수려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음식이 있는 월정사가 내겐 집처럼 편안하다. 여러분도 삭발하며 삼보에 귀의했으니 월정사를 자신의 집처럼 생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7월 7일에는 참가자 전원이 연비의식을 통해 오계를 수지하며 불자로 거듭났다. 월정사 문수선원에서 진행된 수계식에서 전계사로 법상에 오른 주지 정념 스님은 행자들이 지켜야 할 삼귀의계와 오계를 영어로 설했다. 이내 정념 스님은 "Will you keep all them(삼귀의와 오계를 지키겠습니까)"라며 세 번에 걸쳐 물었고 모든 행자들은 "Yes, I will"이라고 우렁차게 답을 했다.

계를 수지한 행자들은 "삼귀의와 오계를 받은 공덕으로 삼악도와 팔난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모든 불사를 성취하며, 이 공덕을 일체중생에게 베풀어 모두 보리심을 발하게 하겠다"고 발원했다.

삭발 · 수계, 나를 변화시키는 계기

삭발과 수계를 통해 불자로 거듭난 참가자들은 월정사 단기출가의 경험이 자신에게 변화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7년 전 불교를 공부하다 숭산 스님의 법을 접하고 현재는 홍대선원에서 스태프로 활동중인 이색 경력을 가진 하난 울프선(30, 이스라엘) 씨는 삭발 및 수계식에서 동강(東康)을 받았다. 울프선 씨는 "삭발의식은 제 과거를 떠나보내고 미래로 한 걸음 나아가는 중요한 순간으로 다가왔다. 불교의 다르마 정신에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시간이기도 했다"며 "앞으로 한 달여의 시간동안 불교 수행과 공부를 계속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 이를 통해 나에게 제일 맞는 수행 방식을 배우고 싶다"고 밝혔다.

'동원(東願)'이라는 법명을 받은 버나드 베론스(28, 노르웨이) 씨는 "신경과학자로 활동 중인데, 목표 중 하나가 명상에 대해 좀 더 심도 있게 배우는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행복을 얻는 데 도움을 주고 싶다"며 "베트남과 일본의 선수행은 익힌 바가 있다. 한 달동안 월정사에 한국의 참선과 출가문화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학교 지도교수의 소개로 우든피쉬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토마스 윌킨스(21, 미국) 씨는 삭발·수계식을 통해 '동희(東熙)'라는 법명을 받고 불자가 됐다. 윌킨스 씨는 "보스톤 대학교를 졸업하고 석사학위를 준비 중인데, 아시아 철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한국과 불교를 배우고 싶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프로그램 참가 당시, 나쁜 습관과 자기혐오가 심했는데 삭발과 수계를 바탕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 달 뒤에는 긍정적 사고 갖고 주위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서각(西覺)'이라는 법명을 받은 소피아 쿠티쉬체바(20, 러시아) 씨는 "인도에서 삭발하려 했는데 인연이 닿지는 못했다. 오늘 스님들께서 제 머리를 삭발해주셨는데 제가 가진 집착과 나쁜 습관들을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됐다"면서 "오늘 이 순간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밝혔다.

'서강(西江)'이라는 법명을 받은 에밀리아 오초트니카(19, 체코) 씨는 "어렸을 때부터 헤어스타일에 굉장히 신경 써 왔는데, 삭발하며 만감이 교차했다"면서 "앞으로 제 삶에서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생길 예정이다. 대학을 진학하며 집에서 독립하는 등 새로운 삶이 펼쳐질 예정인데 그 전에 나를 좀 더 강하게 만들고 싶었다. 앞으로 프로그램을 통해 제 내면의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우드피쉬재단 회원 참가자들은 약 4주간 월정사 단기출가학교에서 생활하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체험할 예정이다. 이들은 7월 6일 삭발식 이후 자신의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묻는 의식을 진행했으며, 7월 7일에는 적멸보궁을 참배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불교의 참선수행을 비롯해 전나무숲 3보1배, 강원도무형문화재 월정사탑돌이, 선재길 걷기명상, 상원사 탐방, 혜민 스님 특강 등도 진행된다. 4주간의 프로그램은 모두 영어로 이뤄지며, 마지막 1주는 집중 명상 수행 주간으로 진행된다.

월정사는 이번 글로벌 명상수행 프로그램을 통해 한국 산사문화에 기반한 K-불교명상의 보급과 미래세대 국제 명상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협업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주지 정념 스님은 "월정사 출가학교가 20주년을 맞았고, 세계 명상 축제를 진행하는 만큼 출가학교의 프로그램이 세계화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미국 우든피쉬재단과 국제 교류를 추진하게 됐다"면서 "전 세계의 청년들이 한국의 출가학교 프로그램을 참여한다는 것은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스님은 "무엇보다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청년들이 명상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확인됐다. 이런 세계적 흐름을 월정사와 한국불교가 배우고 체득해 우리의 수행 프로그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월정사는 한국 및 외국 대학생들이 함께 하는 명상 축제 등을 통해 세계인의 명상 성지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불편함과 아픔의 고통!
마이크로파로 통증 염증을 치유하세요~

극초단파
ARA-880 P

3분의 기적을 체험하세요~



불면증, 관절염, 목, 어깨, 허리, 무릎, 좌골신경통, 치질, 무좀, 습진, 하지정맥, 비염, 천식, 변비, 설사, 비만, 위염,기관지, 위경련, 족저근막염, 당뇨, 중풍, 고혈압, 신종플루, 등 통증완화

▶고출력 극초단파 (250W)로 열감과 지속성이 뛰어남
▶치료 부위에 따라 자유롭게 각도 조절이 가능
▶쉽고 편리하게 설계되어 사용하기가 편리
▶제품의 경량화(30KG)로 이동하기 용이

상담문의 부성

T 010.3730.9413

염불전문 특수마이크 !
최신 디지털 유무선 염불전문 마이크 탄생!

본품은 주문 및 방문판매만 함으로 시중에 없고 있을시는 일천만원 포상! (지금 이글은 법적증서)

마이크 소리만 들어보는 조건으로 신청하시면 신청들을 모아서 반드시 귀 사찰의 부근을 지날 때만 겸사겸사 방문!
귀 법당시설 마이크와 본사 견본 마이크 양손 비교시 장난감 수준차이 반드시 확인!

현장 테스트시 광고 내용과 추호라도 다르면 누구망신?!

본사는 20여 년간 설악 신흥사와 남해의 토굴까지 2천여 사찰을 시설한 베테랑업체!

▣ USB겸용 앰프1, 스피커 4개, 헤드셋 핀 핸드무선마이크, 무선마이크 종류별 4개, 유선마이크 1개
(스탠드 포함) 시설가격 : 항상 귀 법당 기존 시설비의 1/3 (설악 신흥사 설법전 1400만원 시설 확인해 보세요)

▣ 주소 : 경남 김해시 진례면 진례로 백팔 명품Sound 명품사운드 대표 박 공 희 ☎ 055-343-1191, 010-9471-2026

충전식 / 출력 300kw / 헤드셋 무선 2개
유선 2개 마이크 4개 동시사용, USB 동시녹음
실내 100평 가능 / 야외사용 겸용 (스탠드 포함)

넥타이핀마이크 2개, 헤드셋마이크 2개, 마이크 숫자 4개
▣ 한국사찰 각종 재 필수품 주문 방문설치, 사용설명
시중에 없음
마이크 마이크

시중에 없음
특징 : 마이크와 2m거리에서
작은 소리에도 청아하고
신명나는 소리로 화답!